

아마존 “물품 직접 수령하면 10달러 지급”



▲ 배달을 위해 쌓여있는 아마존 박스들.
사진=shutterstock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에서 주문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고객들에게는 10달러를 제공한다.

10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연간 139달러의 비용을 내는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들에게 25달러 이상 주문한 후 아마존 프레시나 홀푸드, 콜스와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직접 수령할 경우 10달러를 지급한다고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아마존 프레시나 홀푸드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식자재 마켓이다. 백화점인 콜스는 2019년부터 아마존과 제휴해 물건을 수령·반품하고 있다.

아마존의 이런 정책은 증가하는 배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

했다.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들은 현재 주문 물품을 무료 배송 받거나 반품할 수 있다.

뉴욕의 한 배송 컨설턴트인 딘 마시우라는 이에 대해 “아마존이 배송 비용을 절감할 좋은 기회”이며 “소비자들도 매장에서 상품을 반품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의류 매장인 자라, 애버크롬비, 스포츠 브랜드 풋락커 등 많은 업체가 배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료 배송 옵션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도 그동안 비용 상승으로 배송 및 반품 서비스를 일부 변경해 왔다. 지난해에는 프라임 회원의 연간 가입비를 20달러에서 139달러로 인상했고, 150달러 미만의 식료품 주문에 대해서는 최대 10달러의 배송비를 부과했다. 또 미국 배송업체 UPS를 통해 이뤄지는 일부 반품에 대해서는 1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마존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 불만도 제기됐다.

뉴욕에 거주하는 브라이언 파비아노는 “아내와 나는 배송 혜택 때문에 프라임 회원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약에 무료 배송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하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톡 단톡방에서 남모르게 나갈 수 있다

카카오톡(카톡) 단톡방그룹 채팅방에서 남들 모르게 나갈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업데이트(10.2.0버전)를 통해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실험실에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실험실’ 메뉴에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를 선택하면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옵션 적용 뒤 단체 카톡방을 나가면, ‘000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다른 참여자들에게 표시되지 않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화가 뜸해졌거나 나갈 타이밍을 놓친 단톡방의 불필요한 메시지와 알림으로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들의 스트레스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히 나가기’ 기능 추가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대화 스트레스나 부담



▲ 카카오톡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추가되었다. 사진=카카오톡 캡처

을 줄이고 일상 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진행 중인 ‘카톡이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프로젝트는 누구나 장벽 없이 안전하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새 기능을 카카오톡에 추가하고 기존 기능을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한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이용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알림을 손쉽게 끄거나 알림 방식을 이용자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랜드 오프닝

정약국



Jung Pharmacy



정은혜 약학 박사
(Grace Jung)

VISIT US
Your Health is Our Priority

한분 한분 친절과 정성으로 섬깁니다.

행복한 약국,
웃음이 있는 약국

건강을 생각하는 약국,
정약국입니다.

각종 보험 환영(메디케어/메디케이드/HMO/PPO)

건강 상담/혈압 당뇨 측정/예방 접종/처방약 조제/무료 배달 서비스/한국약 판매/비타민/건강 보조제



정약국

714.752.6027

Open hours: 월~금 9am-6pm / 토 9am-2pm | Fax: 714.676.5508

카카오톡 ID: jungrx | 6771 Beach Blvd. Ste E, Buena Park, CA 90621



소스몰 맞은편, 명인만두 옆